

스크린 새 바람 | 세상을 바꿀 '쎈' 여자들이 온다

범죄 해결사·스포츠영웅...스크린 '강한 여성 시대'



히스토리

세상을 바꿀, 강한 여자들이 온다. 세상의 변화를 담아내고, 이를 다시 비추는 '창'으로 통하는 영화에서 여성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 단순히 여배우의 활동이나 여성 캐릭터가 자주 등장하는 차원을 넘어 각자의 삶에 주체적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당당한 여성들이 스크린을 채워나간다. 이달 말 개봉하는 김희애 주연의 '히스토리'부터 라미란·이성경의 형사물 '결갑스'가 대표적이다. 개봉 1주일 만에 300만 관객을 앞둔 '독전'의 흥행을 이끄는 매혹적인 3인의 여배우 김성령, 진서연, 이주영도 빼놓지 어렵다. 이런 흐름은 할리우드에서 먼저 시작됐다. 남자배우가 독식해온 케이트 윈슬렛, 스파이 장르를 여배우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영화 여성캐릭터 변천사

엽기적 그녀·조폭마누라까지 시대 따라 점점 세지는 여성들

영화 속 여성 캐릭터는 시대상과 함께 변화해왔다. 현실을 반영하는 매체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화의 주 관객층이 여성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검열 폐지에 따른 소재와 장르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 확대, 창의적 기획력을 갖춘 전문인력 유입, 영상세대의 성장 등을 통해 한국영화가 중흥기를 맞은 1990년대 이후 여성 캐릭터는 더욱 다채롭게 스크린을 장식했다.

1992년 김의석 감독의 '결혼이야기'는 그 포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혼부부의 좌충우돌을 그린 영화는 심혜진이 연기한 최민수의 아내를 통해 신세대 전문직 여성의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을 연기했다. 현대적 여성의 새로운 캐릭터로서 이전의 남이었다.

이 같은 모습은 1990년대 멜로영화 속에서 다채롭게 변주됐다. 특히 1998년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 속 강수연과, 진희경, 김예진이 더욱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며 여성의 욕망에 관한 솔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듬해 '쉬리'의 김윤진은 액션연기를 통해 '여전사' 캐릭터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2001년 '엽기적인 그녀'의 '엽기녀'는 로맨틱코미디 영화의 여성 캐릭터를 단박에 전복했다. 첫사랑의 아픔을 그야말로 엽기적으로 드러내며 남성 캐릭터를 압도한 '그녀'는 전지현의 순정만렙 외모와 어우러지며 캐릭터의 절묘한 매력을 더했다.

이처럼 더욱 '세진' 여성 캐릭터는 아예 여성 조폭 보스('조폭마누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피도 눈물도 없이'와 '무뢰한'의 전도연,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마더'의 김혜자, 비호감의 매력력을 극대화한 '미스 홍당무'의 공효진 등 개성 강하고 독특한 여성 캐릭터들이 잇따랐다. 김혜수는 '미옥'과 '차이나타운'을 통해 조직을 이끄는 보스로서 카리스마를 드러내기도 했고, '악녀' 김옥빈은 남자배우도 뺀 현란한 액션연기로 영역을 확장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위안부 재판 실화 담은 '히스토리' 김희애·김혜수 등 여배우 총출동

라미란·이성경의 형사물 '결갑스' '디바' 신민아 스포츠 히어로 변신

미투 바람 속 주제적 여성영화 ↑ "다양성 확보" 영화계 환영 목소리

김희애와 김혜수, 손예진과 신민아 그리고 이정은을 넘어 라미란과 이성경까지. 저마다 매력과 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스크린을 무대로 삼아 자신의 삶은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인물들을 그려낸다. 주체적인 여성을 영화에 담아내려는 제작진의 시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톱 배우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히스토리'부터 '결갑스'까지

이달 말 개봉하는 '히스토리'는 역사의 물길을 바꾼 여성들의 이야기다. 일제강점기 전쟁 피해 여성들이 1992년부터 6년간 벌인 재판 실화를 영화로 옮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히스토리'는 최근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한다. 자신의 삶을 적극 개척하는 것은 물론 주체적인 행동 속에 성과를 내는 여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김희애를 중심으로 김혜수, 문숙, 예수정까지 작품을 완성한 이들도 전부 여배우다. 이들은 위안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바꾼 승리의 기록'을 관객에 선사한다.

남성배우들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장르영

화도 점차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캐릭터에 주목하고 있다. 7월 촬영을 시작하는 라미란·이성경 주연의 '결갑스'가 대표적이다. 한국영화에서 찾기 어려운 여성 투톱 범죄형 사물이란 사실이 흥미로우면서도 반갑다. 특히 '결갑스'는 기존 범죄물에서 주로 범죄 피해자에 놓였던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악랄한 범죄를 밝혀내 응징하는 내용이란 점에서 관심을 더하고 있다.

손예진이 경찰 협상팀 전문가로 나서 납치극을 파헤치는 '협상', 신민아가 주연으로 나선 다이빙 소재의 스포츠드라마 '디바'도 주제적인 여성이 극을 이끌어가는 작품이다. 현재 후반작업에 한창인 '국가 부도의 날' 역시 IMF 협상에서 국가의 부도를 막아낸 여성이 주축인 이야기로, 김혜수가 전면에 나선다.

● '여성론트츠' 높아야 다양성 확보'

여성 중심의 영화가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는 최근 성평등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할리우드 여배우들로부터 촉발된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성평등을 외치는 거센 바람이 불었고, 이를 적극 수용한 곳이 바로 영화계이기도 하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가 문을 여는 등 사회적 요구를 빠르게 받아들인 영화계가 제작 현장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를 더한다.

여성이 주체가 되는 영화의 필요성은 현장의 목소리 뿐 아니라 여러 정책연구를 통해서도 요구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4월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를 발표하고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에서 여성 주체적인 작품이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여성주의적인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영화는 더욱 영화다워지고, 양쪽의 눈으로 세

계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여성의 내면을 통해 인간의 욕망까지 들여다보는 등 내밀한 시도가 이어진다. 배우 이정현은 신인 정지영 감독과 함께 미스터리 장르의 '밀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도연, 윤여정이 함께 나선 영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짐승들' 역시 의문의 사건에 휘말린 여성들이 각자의 욕망을 위해 악의 세계로 들어서며 겪는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악랄한 범죄·마약...독전 '쎈' 여성들의 독무대

현재 흥행 중인 영화 '독전'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여성 캐릭터의 무대로도 꼽힌다. 마약조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속에서 김성령과 진서연, 이주영으로 대표되는 여성 캐릭터는 강렬한 이미지와 역할로 관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김성령은 마약조직의 후견인을 연기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경찰에게 조직의 실체에 관한 정보를 건네는 인물이다. 자신의 범죄행위마저 거침없이 드러내며 경찰 앞에서도 당당한 캐릭터는 남자배우가 맡아도 무방했을 터이지만 김성령의 연기로 오히려 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었다. 캐릭터를 제대로 드러내는 빨간 재킷과 앞트임 꽃무늬 바지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함을 더했다.

진서연은 중국에서 날아온 마약왕의 연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의 진가를 표현해냈다. 두려울 것 하나 없

는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마약에 취해가면서도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모습은 이전의 수많은 여성 캐릭터를 훌쩍 뛰어넘는다. 진서연은 다소 천박해보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위해 1시간 가까운 주근깨 분장과 과감한 노출도 마다하지 않았다. 영화 '반창꼬'에서 함께 연기한 한효주가 그를 추천한 뒤 오디션을 통해 가장 마지막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모델 출신이자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라이브'로 시청자와 만난 이주영은 무심한 표정으로 마약을 만들어내는 기술자 역으로 김동영과 함께 '농아남매'를 연기했다. 청각장애를 지닌 마약제조 기술자 역으로 대사 한 마디 없이 오로지 수화의 몸짓과 손짓으로만 연기하면서도 관객에게 충분한 캐릭터의 개성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성공하며 또 다른 주역의 이미지를 남겼다. 윤여수 전문기자

블란쳇·해서웨이·폴슨... '오션스8', 여배우 8명이 주연 싸늘이

할리우드는 이미 여성영화 돌풍

"우리는 카메라 앞과 뒤에서 남자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는 세상을 원한다."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여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최근 막을 내린 칸 국제영화제에서 동료 여성 영화인 81명과 함께 레드 카펫에 올라 밝힌 성평등 촉구 성명의 일 부분이다. 영화산업에서 여성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선언이자, 평등한 기회를 달라는 외침이다. 이런 요구는 최근 할리우드에서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13일 개봉하는 '오션스8'은 내로라하는 톱 여배우들이 전면에 나선 영화다. 케이트 블란쳇을 중심으로 샌드라 불럭, 앤 해서웨이, 사라 폴슨 등 8명의 스타가 출연한다. 현재 할리우드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캐스팅 1순위 여배우들이다.

'오션스8'은 그동안 조지 클루니와 매트 데이먼 등이 이끈 '오션스' 시리즈의 첫 여성 버전이다. 고가의 다이아몬드 탈취작전을 다룬 이야기는 앞선 시리즈의 흐름을 이어가지만, 8명의 주인공이 전부 여성이란 사실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케이퍼무비(범죄자들이 무언가를 강탈하는 내용)가 오로지 여배우들로 주연자리를 채우기는 이례적이다.

현재 제작이 한창인 할리우드 블록버

스터 '355'는 5개국 대표 여배우를 전면에 내세운 스파이 영화다. 그동안 '007'부터 '본' 시리즈까지 스파이 영화의 주역은 주로 남성이었지만, '355'는 그에 맞서 여성스파이물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제시카 차스테인, 페넬로페 크루즈, 마리오 코티아르와 중국의 판빙빙이 주연을 맡았다.

'355'는 세계를 위협하는 집단을 막는 여성 스파이들의 활약을 그리는 작품. 제목이 담은 숫자의 의미는 미국 독립혁명 당시 실제 활동한 여성 스파이의 코드네임으로 알려졌다.

이해리 기자



진서연